

화폭에 담긴 제주



제주도립미술관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저마다 사연을 가진 작품들이 제주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00로 | 서귀포시 중문동 1918-4 ~ 제주시 노형동 918(약 33.6km)

미리내길 | 제주시 노형동 1820-1 ~ 제주시 노형동 315-5(약 2.2km)

광이오름길 | 제주시 연동 903-1 ~ 제주시 연동 1164-5(약 1.7km)

종천길 | 제주시 오라2동 584 ~ 제주시 오라2동 3395(약 4.5km)

축산마을길 | 제주시 노형동 292 ~ 제주시 해안동 50-4(약 1.4km)

1100로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은 신제주에서 1100로를 통해 서귀포를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2009년 개관한 제주도립미술관은 도심과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주 사람들은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시간과 비용 문제로 좋은 전시회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만 문화를 향유하려는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부터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주의 산과 바다, 오름과 바람 등은 작가들의 예술

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준다. 이곳에서는 저마다 사연을 가진 작품들이 화폭 속에서 색다른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관 건물 주변은 공원처럼 조성되어 가볍게 쉬어갈 수 있다. 곳곳에 설치된 다양한 조각 작품이 운치를 더해주면서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미리내길 | 미리내공원

1100로 서쪽에 있는 **미리내길**은 눈오름 아래 있는 미리내공원을 연상해서 부여한 이름이다. 미리내공원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이후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새롭게 단장해 공원으로 거듭났다. 미리내공원이 있는 눈오름은 누운오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한자로 와악(臥岳)으로 표기했던 것을 보면 누워있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광이오름길 / 종천길 | 광이오름과 검은오름

1100로를 사이에 두고 미리내길과 반대편에 나 있는 **광이오름길**은 인근에 있는 광이오름을 연상해서 붙인 이름이다. 땅 모양이 광이(괘이) 모양으로 생겨서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광이오름에는 한라수목원이 조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

광이오름 동쪽을 지나는 **종천길**은 종천이 있던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종천길 인근에는 검은오름이 있다. 숲이 우거져 있어 검게 보인다는 뜻의 검은오름은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신시가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오름들은 답답한 아스팔트에서 벗어나 자연을 거닐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준다.

축산마을길 | 축산마을

축산마을길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1100로를 따라 신비의 도로를 지나서 조금만 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길인데 축산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한라산에서 시작된 도근천이 지나는 이곳은 1960년대 축산 사업을 장려하면서 축산단지 조성되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축산마을길**에는 축산진흥원이 있어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와 제주흑우 등의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고 제주의 축산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